

영국정부, 대 인도 직접 경제원조 중단 예정

(2012. 11. 15)

뉴델리사무소

□ 영국정부, 대 인도 경제원조 중단

○ 영국 국제개발부는 그 동안 인도 정부에 제공해왔던 연간 2억 2천만 파운드(3억 5천만불) 규모의 직접 경제원조를 오는 '15년부터 중단한다고 밝힘

- 저스틴 그리닝 영국 국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11월 8일 뉴델리에서 인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“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인도에는 직접 원조보다는 기술지원 등을 통한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”는 데 영국과 인도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.”고 밝힘

- 영국 정부는 오는 '15년까지 현재 진행 중인 대인도 원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종료한 후 경제통상협력, 대인도 기술이전 및 민간 구호활동 등 간접지원 확대 계획

영국의 대 인도 ODA 지원규모 현황

(단위 : U\$백만)

기간별	1961~70	1971~80	1981~90	91~2000	2001~'10
지원규모	703.57	1,431.26	1,226.35	1,451.47	4,550.50
	2006	2007	2008	2009	2010
	349.30	510.53	613.12	630.34	650.34

자 료 : Aid Statistics,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(OECD)

-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결정의 주요 원인은 영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는 아시아 3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고 심지어 우주 개발 프로젝트에 수억불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는 인도를 더 이상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

- 인도가 식민지배에서 독립한 1947년 이후 경제 원조를 지속해 온 영국은 인도가 최근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가난과 기아로 고통받는 80%이상되는 저소득층을 고려해 경제원조를 계속 진행하여 왔음

자료원 : Times of India 등 언론 종합